

#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염원

### 익산시,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산·학·연·관 기업 간담회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익산시는 17일 지역 바이오산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북자치도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했다.

이날 시는 월성동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동물용 의약품 관련 11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익산이 가지고 있는 동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관의 집적화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또 전북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면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2개 분야에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했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산업

의 핵심자인 익산-전주정읍을 연계한 산학관계를 구축해 공모에 도전한 상황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동물 오가노이드 연구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이르는 전주기 지원이 이뤄지는 바이오 산업 최적지"라며 "글로벌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지난 14~15일 진행된 익산 구시장 '이리와 포차 축제'가 전석을 가득 채우며 방문객들의 인기 속에 마무리됐다.

## 구시장 '이리와 포차 축제' 성료

### 익산시,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서... 5000여명 방문

익산 남부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지난 14~15일 진행된 익산 구시장 '이리와 포차 축제'가 전석을 가득 채우며 방문객들의 인기 속에 마무리됐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양일간 5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조용했던 시장 일대가 들쭉했다. 방문객들은 시장 곳곳을 즐기는 등 오랜만에 전통 시장에 활기가 차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했다.

익산 구시장 '이리와 포차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상인회가 주관했다.

이번 축제는 60여 가지의 다양하고 가성비 있는 먹거리와 흥겨운 공연, 체험행사까지 다채롭게 준비돼 축제장을 찾는 이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익산 지역화폐인 디드로움 카드 이용 시 10% 추가 적립 이벤트까지 제공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도 더해졌다.

특히 지역업체인 하이트 진로와의 협업을 통해 시원한 주류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으며, 마감 세일에는 주류를 포함한 먹거리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먹거리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관광객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접수 받아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7월 13일 열리는 대망의 본선은 호원대학교 K-POP댄스팀으로 구성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개막식 후 본 무대에서는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로 게임 유투버 백크팀 대 ZEDX 팀의 5:5 리그오브레전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방식은 아마추어 게이머 8명이 4명으로 나뉘어 백크와 ZEDX 과 각각 팀을 이뤄 진행되는 방식이다. 경기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게이머들은 사전 접수 후 현장추첨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게임 유투버와 함께하는 사인회도 열릴 예정이다.

군산의 역사를 담은 특별 이벤트도 있는데 '진포대첩 모바일 게임'으로 6월 1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랭킹전과 현장 랭킹전으로 나뉘어 승부를 가린다. /군산=이재춘 기자

##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7월 13일 개최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총상금 1천만원 규모의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오는 7월 13일 익산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지역 내 e스포츠 문화 수요의 증폭과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5인 팀전), 발로란트(학교대항전, 5인 팀전), FC온라인(개인전) 사전예선 종목과 당일 현장 접수로 진행되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개인전) 종목으로 진행된다.

지난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150명, 558명이 접수했으며,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일요일 종목별 예선전이 열린다. 예선전을 통해 최종 4장 진출자가 가려지게 된다. 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종목은 7월 13일 현장 접수를 통해 경기가 진행된다.

군산시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역(예비)창업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기업이 마케팅에 투자한 비용을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결과와 성과를 명확히 추적하고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활동 노출 수, 클릭 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을 지원해 창업 초기 단계의 마케팅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교육은 7월 11일부터 이틀간 청년들 3층 IT교육실에서 진행, 네이버와 구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조사 방법부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전략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기술들을 교육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 '한(韓) 문화의 중심지 익산' 디지털 실감콘텐츠로 만난다

### 마한박물관,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구축·운영' 공모 선정... 12월까지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익산시가 한(韓) 문화 중심지의 역사적 가치를 일리기 위해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제작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한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신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의 문화 및 대중시설을 대상으로 3D데이

터를 활용한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고조선 준왕이 위만제의 난을 피해 익산으로 내려와 마한을 세웠다'라는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VR 체험 콘텐츠를 제안했다.

또한 서면 및 현장 심사에서 서동공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 선정으로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지원을 받게 됐다.

마한박물관은 콘텐츠의 세부 내용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까지 VR 탑승형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체험시설 구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최신 전시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체험 관광지의 역할을 더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韓) 문화의 중심지 익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무더위 탈출'... 군산야외수영장 7월 5일 개장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군산시가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야외수영장을 개장한다.

운영기간은 7월 5일~8월 25일, 52일간이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오후 1시~2시 사이에는 수질 및 환경정비를 위한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

2016년 개장 이후 연간 3만여 명이 이용하는 군산야외수영장은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강을 조망하며 물놀이

를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다.

또한 넓은 주차장과 워터슬라이드, 종합놀이시설, 분수대를 비롯하여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여름 휴가지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다.

군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가족 단위 이용객·청소년들이 여름을 안전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야외수영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 워터슬라이드, 물놀이 시설 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고, 성인·유아 풀장 바닥 탄성포장과 이용객 휴식용 데크를 교체해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또한 이용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0여 명의 안전요원 및 간호요원 등도 배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유아 2,000원,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어른 5,000원, 경로우대자 등은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모녀의 하루 in 군산' 18일 선착순 온라인 모집

군산시는 모녀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모녀의 하루 in 군산'을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모집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엄마와 딸로 구성된 여행팀이며, 20개팀, 총 4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가 첫 시도하는 콘셉트로, 새로운 관광객 유치 및 군산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당일 패키지 여행이다.

여행코스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이번 여행은 △옛날 감성 교복을 빌려입고 철길을 따라 걸으며 엄마의 추억을 공유하는 경암동 철길마을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세길이라 불리는 진귀한 밀물 썰물의 절묘한 순간을 체험하는 무녀도 쥘쥘섬 △강화유리로 된 바다 아래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아찔한 풍경의 장자교 스카이워크 등이 소개된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청년들 '퍼포먼스 마케팅 교육'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들 창업연타가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역(예비)창업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기업이 마케팅에 투자한 비용을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결과와 성과를 명확히 추적하고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활동 노출 수, 클릭 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을 지원해 창업 초기 단계의 마케팅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교육은 7월 11일부터 이틀간 청년들 3층 IT교육실에서 진행, 네이버와 구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조사 방법부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전략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기술들을 교육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전주매일 캠페인